

# “장애 뛰어넘고 세상과 소통...음악은 인생 동반자”

♥ 2014 희망을 주는 사람들 ④ 광산구 6인조 '제 멋대로 밴드'

“첫 곡 제목이 뭐지 아세요?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함께 부릅시다.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의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악보를 보면서 전자 기타를 치는 김동호(45)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머리를 흔들고, 베이스 기타를 치는 김관록(35)씨도 휠체어에 앉아 손가락을 분주히 뿜긴다. 드럼을 맡은 양은주(여·55)씨와 신디사이저 홍세려(여·31)씨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박자를 맞춘다.

무대 앞에 선 보컬 방려형(26)씨는 휠체어를 탄 동료 보컬 신명옥(여·41)씨의 보조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지난 3일 오후 4시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마음장애인공동체 4층 연습실. 휠체어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제 멋대로 밴드’가 다음달 열 예정인 공연 연습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한마음 장애인공동체에서 악기를 배우며 만난 뒤 곧바로 밴드를 결성했다. ‘제 멋대로 밴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에 비유해 ‘역경을 딛고 새 희망을 찾는다’는

의미다. 리더 김동호씨는 “악보를 볼 수도, 풍나물 머리를 그릴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잘 치는 편”이라며 “연주할 곡이 정해지면 우선 수십 번씩 들으며 기타 드럼 베

악보는 볼수 없지만  
수십번씩 들으며 연습

공연횟수만 41차례  
벌써 팬들도 생겼어요

이스 등 자기가 맡은 부분부터 외운다. 그런 뒤에 다시 수십 번씩 맞춰 본다. 오래 걸리고 원곡과 달라지기 일수지만 우리만의 화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음악은 인생의 동반자다. 그리고 희망이다. 음악을 시작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음악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을 불러주는 곳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그간 공연횟수만 41차례다. 이들의 열정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3명으로 구성된 '제 멋대로 밴드'가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마음장애인공동체 사무실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연 때마다 악기나 자리를 옮기기가 힘들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매니저 역할을 맡아 도와준다.

이제는 제법 제 멋대로 밴드를 알아보는 팬도 생겼다. 공연을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관객들을 보면 절로 힘이 난다는 이들에게도 작은 바람

이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다. 김씨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용기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좋은 정책과

법안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며 “문화를 매개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5분 달돋이 10시 49분 달질 23시 15분

**맑은 하늘**  
낮에 기온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다.

광주	맑음	-3/8℃
목포	맑음	-3/7℃
여수	맑음	1/8℃
나주	맑음	-7/8℃
완도	맑음	-1/9℃
구례	맑음	-6/9℃
강진	맑음	-5/9℃
해남	맑음	-5/9℃
장흥	맑음	-5/9℃
순천	맑음	-2/10℃
영광	맑음	-6/7℃
진도	맑음	-2/8℃
전주	맑음	-4/7℃
군산	맑음	-4/6℃
남원	맑음	-4/7℃
혁신도	맑음	3/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김기치수 동파치수 뇌졸중치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김기치수 동파치수 뇌졸중치수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대우높음 낮음 대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목포 05:33 10:3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여수 00:15 06: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날씨						
최저/최고	-2/3	2/5	-4/0	-5/2	-4/5	-3/5

## 광주·전남 주중 눈·비...다시 추워진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 중반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8일 오전부터 비나 눈 오는 곳 있겠다. 이 후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최저기온이 광주 영하 5도, 목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에는 광주·전남지역에 눈 내리는 곳 있겠다고 기

상청은 전망했다. 11일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이 내놓은 '1개월 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이달 중순까지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달 말께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대폭 늘린다

당정, 올해 예산 3조4575억 확정...작년보다 6825억 증액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1225억 포함...14일까지 신청해야

올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국가 장학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당초 3조375억원에서 1500억원이 증가한 3조4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825억원(25%) 늘어난 규모다. 증액된 예산에는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 1225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주로 국가장

학금 I 유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I 유형은 성적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분위별로 올해 증액된 장학금 규모는 2분위 180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90만원, 5분위 22만5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급기준액의 60%인 270만원을 받은 2분위 학생은 올해 180만원을 더 받게 됐다. 한편,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재학생과 대학 입학 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소득분위 확인, 성적 조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장학금 선발이 완료된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는 3월3~21일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꼭 낀 스키니·레깅스 입는 20대 여성 다리 정맥 문제 호소 환자 크게 는다**  
작년 14만명 가 뛰어나와 보인다.

해마다 여성 환자가 남성의 약 2배 정도도 많고,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역시 여성(3.6%)이 남성(2.4%)보다 높았다. 하지정맥류는 외관상 변화뿐 아니라 무거운 부츠(중·중·중·중)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유전과 환경이 모두 발병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오래 서 있을 경우 다리를 자주 구부렸다 펴거나 제자리 걸음 등으로 혈액 순환을 도와야한다. 윗때에는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연남뉴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를 보면 하지정맥류(질병코드 I83) 환자는 2007년 12만명에서 지난해 14만명으로 5년동안 17% 늘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와 발의 정맥 팽창이 커지거나 혹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피부 아래 정맥이 확장되면 다리에 정맥이 비치거나 그 부위 피부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걸 교육부 국장 임명**

전남도교육청 신임 부교육감에 정병걸(56·사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국장이 임명됐다. 정 부교육감은 영광 출신으로 광주고와 전남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교직생활 중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통 교육관료가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교육청·전남대 등에서 근무했으며, 교과부 지방교육 혁신과장·대전 선진과과장·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조순대 정상화 등 사회분쟁 해결에 앞장섰다. 한편, 이종훈 전 부교육감은 충남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황칠나라**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용봉점** 광주 서구 용봉동 948-33 062-375-8233  
**여수점** 전남 여주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황칠시크릿 진액** 기아타이거즈 공식후원상품

**현역력 이빨다터 종을 손잡는데...**

www.황칠나라.kr